

자동차·기계부품 생산중단 “위기”

주물업계, 납품단가 인상 요구 ... 원료가격 급등에도 반영 안돼

금속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주물업계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자동차 및 기계부품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5월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5월17일까지 납품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물조합에 따르면, 주물제품의 원료인 고철 가격이 2008년 11월 kg당 340원에서 2010년 4월 말 562원으로 65% 올랐고, 선철(F1A) 가격도 현재 kg당 550원에서 6월3일부로 7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물로 제작해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의 평균가격은 2008년 kg당 1009원에서 2010년 1080원으로 7% 오르는데 그쳤고, 공작기계부품은 오히려 5.4% 떨어졌다.

주물조합 관계자는 “현재 수요기업들이 단가인상 협의에서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기업들은 2009년 팔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7>